

대학생 복식 현상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유지현 · 이성희* · 한명숙**

상명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시간강사, *대학원, **교수

An Analysis of Symbolism about College Student Clothing Phenomena

Ji-Hun Yu, Seoung-Hee Lee* and Myoung-Sook Han**

Department of Home Economic, Part-time Instructor of Sang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Professor

目 次

Abstract	1. 성별의 상징
I. 서론	2. 동일성의 상징 및 개체화의 상징
II. 이론적 배경	3. 표상의 상징
1. 성역할 이론	4. 의례의 상징
2. 정체감 이론	5. 대학생의 패션경향
3. 대학생의 특성	IV. 결론
4. 의복에 있어서의 상징성	참고문헌
5. '93, '94년도의 패션 경향	
III. 대학생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and meaning of symbols, of the clothes of the college students by sex-roll theory and identity theory. The clothe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photographs which were taken in the campus (240 out of 1,000 pictures) of the seve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Seoul form fall in 1993 to summer in 199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nalysis as a symbol of sexuality.

The phenomenon of the visual inconsistency and consistency of sexual image in dress were showed simultaneously. The clothes of male students were generally becoming

feminine style in materials and colors of clothes. These suggested that sex-roll theory be applied to their clothes.

2. Analysis as symbols of identification or individuality.

The identification of shoes, bags, accessories, and hair styles were prominent than that of clothes. When it was analyzed as a symbol of individuality, the college students seemed to act as fashion leaders, who accepted new fashions and tried them on first. Theses suggested that Erikson's theory on identity be applied to their clothes.

3. Analysis as a symbol of emblem.

The dissimilarities of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and other groups in the same generation were bright and casual attire with files, books, and sack.

4. Analysis as a symbol of campus ceremony.

The clothes of college students on campus ceremonies were more casual and flexible than those of other groups in the same generation.

It was known that the symbols showed above were reflected on their clothes as "one's expressions" which are sex-roll,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I. 서론

복식은 그 사회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 종교적 이상, 경제, 산업발달 상태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을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전달 매개체로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종속되어 물질분야 뿐만 아니라 비물질분야에 변화를 시각적으로 영상화시키고 상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복식은 비언어적인 상징중 대표적인 것으로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인간행위보다 가시적이며 형태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복식상징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Fabridge¹⁾가 어떤 말 또는 글보다 상징적인 장식품이나 건축물과 같은 시각예술에 의한 개념이 생각의 전달을 더욱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하였듯이 그 시대의 복식 현상을 문구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시적 즉, 사진으로 제시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녀 대학생의 복식을 상징성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심리학이론에 적용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본다.

따라서 본연구는, 첫째, 현대 대학생들의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들을 성역할이론과 정체감이론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현대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의복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진단한다.

둘째, 현대에 있어서 문화변동의 역사는 대부분 젊은 층의 반항으로부터 시작되어 젊은이들은 기성인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므로, 문화의 한 양식이라 볼 수 있는 대학생의 복식에 대한 연구를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다른 각도에서 즉, 설문지에 의한 조사가 아닌 인류학에서 field work에 속하는, 직접 입고 있는 복식 현상을 살펴보고 사진촬영 함으로서 현재 변화 과정중인 새로운 복식 문화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Maurice H. Fabridge, *Studies in Biblical and Smitic Symbolism*, (New York:KTAV Publishing House, INC. 1970), pp. 4-5.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 의복 착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993년 10월 부터 12월 까지, 그리고 1994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시내 여러 대학교정에서 1,000여장의 사진 촬영을 하여 그 중 상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진 240장만을 선정하였으며, 같은 기간 내의 잡지²⁾에서 '93 가을/겨울, 94' 봄/여름의 패션 경향을 발췌, 분석하였고, 이들 자료와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복식과 비교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또한 대학생 복식에 나타난 여러 상징성중(성별, 태도, 신분, 역할, 취향, 고정관념, 상황 등...)에서 새로운 성역할 발달이론을 기초로한 성의 가치적 일치, 불일치로 본 '성별의 상징', 정체감 이론을 기초로한 대학생의 특성인 양극화 관점에서 본 '동일성의 상징 및 개체화의 상징', 대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상의 상징', 그리고 각 대학내 행사시 나타나는 '의례의 상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이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성별에 알맞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그에 적합한 행동 즉, 남자는 씩씩하고 여자는 부드러운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 된다. 그러나 개개인 은 이러한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모두 일정하게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정도가 각기 다르다. 같은 남자라도 남성적인 면이 많은 사람과 여성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두가지 면을 골고루 다 지닌 사람도 있다.

성역할이란 특정 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이다. 이러한 기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기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될 수도 있다³⁾.

각 성별, 연령별, 사회, 경제적, 직업적 그리고 지역적 집단은 문화에 의해서 그것에 부여된 어떤 특정 역할들을 가지며 집단내의 개인들은 그 사회의 기대에 따라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의복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을 가리키고 그래서 개인들간에 관계를 조장하도록 돕는다. Kaiser는 의복은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전통적 성역할 또는 변화하는 성역할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⁴⁾.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발달이론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성차이와 성역할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역할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ccoby와 Jacklin이 1,600여편의 심리학 논문을 (성차가 분명히 나타나는 측면과 흔히 성차가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그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남성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성취 지향적인데 비해 여성은 보다 더 감상적이고 소극적이며 의존적이고 남을 잘 도와 준다는 등의 사회적 통념은 근거가 없거나 회박한 것이라고

2) Fashion Today

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1985), p. 181.

4) 정현숙, 김진구, 세익스피어의 비극작품에 나타난 복식역할의 분석,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No. 93), p. 439.

했다. 이로써 남녀간에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적으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성차이는 대부분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라고 보았다⁵⁾.

2) 전통적 성역할 이론

(1) 정신분석학적 이론

Freud⁶⁾는 '정상적' 발달이란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아동기를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처음 몇 년은 남녀가 비슷한 방식으로 발달하다가, 남녀간의 해부학적 차이를 인식하면서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보았다.

(2) 사회학습이론

성역할과 성역할에 따른 행동은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습득된다는 관점으로 어린이는 성인(실체 및 상징적 모델)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성별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성역할 행동을 학습한다는 것이다⁷⁾.

Mischel은 행동에서의 성차는 어린이가 주변에서 남녀가 각기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배웠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비슷한 행동들을 획득하지만 자신의 성에 적합치 않은 행동을 하면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 실행이 제한되어 결국 한쪽의 행동만 실행하게 되고 그것이 성역할로 굳어진다고 보았다⁸⁾.

따라서 성역할의 사회화란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공급자(부모, 형제 등)를 통하여 성별에 적절한 역할을 인식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⁹⁾

(3) 인지발달 이론

성역할의 발달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인지발달 단계에 도달했을 때라야 비로소 성역할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적절한 성역할과 행동의 습득이 가능해진다는 이론이다¹⁰⁾.

Kohlberg 는 성역할 발달이 인지 발달의 부산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아이들은 자아개념을 이용하여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는 성유형화된 선호성과 가치관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활동이나 물건에 가치를 둬으로써 자아정체감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활동이나 물건에 가치를 둬으로써 자아정체감을 유지한다고 보았다¹¹⁾

5)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심리학, (서울:서원, 1993), pp. 111-112.

6) Freud, A.,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Vol. 13, (New York: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8), pp. 255-278.

7) 강혜원, 전계서, pp. 182. (개인용).

8)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전계서, pp. 114-115.

9) 강혜원, 전계서, p. 181.(개인용).

10) 강혜원, 전계서, p182.

11)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전계서, pp. 114-115.

3) 새로운 성역할 발달 이론

(1) 양성성 개념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의 구조와 크기의 변화 등으로 사회와 가정에서의 성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1970년대 초반에 성차이와 개인차를 포괄할 수 있는 양성적 시각에서의 성역할 발달이론 즉, 남녀가 심리적으로 유사하며 고정관념적인 역할은 남녀 모두의 자연스러운 개성과 잠재력의 개발에 제한을 준다는 전제로서 부터 출발되었다. Bem은¹²⁾ 양성성이란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카플란과 세드니는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서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양성성 발달이론

Block¹³⁾은 성역할 발달의 최종목표는 성전형화된 정체감을 습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성성과 남성성 즉, 공감적인 특성과 기능적인 특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발달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어린 아이는 우선 자신이 여자 또는 남자라는 것을 인식한 후 고정관념적 성역할을 습득해 나가는 데 이 단계에서 사회가 규정하는 남녀의 역할을 대개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른이 되면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고정적이었던 성역할이 완화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변화는 자기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마지막 단계에서 성격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되어 양성성을 이루는데 이 단계가 성역할 발달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3) 성역할 초월이론

Hefner, Rebecca 그리고 Oleshansky¹⁴⁾에 의하면 아직 남녀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는 성역할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경험이 늘고 사고가 발달하면서 어린이는 성역할에 대해서 양극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성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반대는 배격한다. 여자아이는 여성적이 되고 남자아이는 남성적이 되는 데 개인에 따라서 이 단계에서 발달이 멈추는 사람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 마지막 단계를 성역할 초월(sex-role transcendence) 단계라 하여 양극적 사고를 초월하여 더욱 개성적이고 적응적인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12) Bem, S. L.,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Paper presented at the UCLA Symposium on Women, 1972).

13) Block, J. H., Conception on Sex Roles: Som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1973, pp. 515-516.

14) Hefner, R., Rebecca, M. and Oleshansky, B.,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975., pp. 143-158.

(4) 성별 도식이론

Bem¹⁵⁾은 1981년에 새로운 이론인 성별도식이론을 인지과정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성전형화된 사람에 비해서 양성적인 사람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성별구분을 별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적합한 행동인가에 대해 아예 의식조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이 더 이상 성별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5) 청소년기의 성별 강화이론

Hill 과 Lynch는 성별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 청소년기에 강화되며,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에게 더욱 강화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성별 강화이론은 청소년기에 성차가 뚜렷해지는 이유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정관념적 방식으로 여자답게 혹은 남자답게 행동하도록 사회화 시키는 압력이 이 시기에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⁶⁾.

2. 정체감 이론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용어는 Erikson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는 자아정체감을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객관적인 측면은 집단정체감이니 국가정체감이니 하는 것으로 어떤 집단의 역사, 전통 및 가치관 등에 자기 자신을 귀속시킴으로써 그러한 귀속감 내지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관적인 측면은 개별적 정체감 (individual identity)으로 Erikson은 다시 개인적 정체감과 자아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개인적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을 이르며 자아정체감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지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 내지는 전체감을 이룩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강한 정체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개인으로서 그러한 특성들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2) 정체감 발달단계

Erikson은 정체감 발달을 8단계로¹⁷⁾ 나누었는데 대학생은 그 중에서 제5단계 (자아정체감

15) Bem, S. L., Gender Schema Theory: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1981. pp. 345-364.

16)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견제서, pp. 119-121.

17) Erikson의 정체감 발달 8단계

제1단계: 기본 신뢰감이 형성되거나,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 (0~18개월 경)

이 형성되거나 정체감 혼미가 형성되는 시기)와 제6단계 (친근감이 형성되거나 고립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5단계는 아직 자신의 존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집단에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당파적이고 배타적일 수도 있는 시기로서 이때 어떤 학생들은 국가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에 동조함으로써 집단 정체감 (group identity)를 형성하기도 한다. 제6단계에서는 이성의 상대방과 공유적 정체감 (shared identity)를 갖고자 원하며 이러한 욕구로 상대방과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3. 대학생의 특성

조규화는 1970년대의 경제 고도성장과 80년대 칼라 T. V. 방영, 교복 자율화 조치를 경험한 신세대는 물질의 풍요속에서 영상으로 자라난 세대이며,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뛰어난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90년을 전후한 위성방송, 외국잡지 등 해외문물의 유입 등에 의해서 더욱 이들의 감성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¹⁸⁾. 또 1993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에는 신세대는 그 해의 문화 기상도를 알리는 관화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몇 마디 말도 짜증스러워 하는 습성을 지녔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이 신세대의 주류를 이루는 대학생층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신세대 대학생의 특성을 감성주의, 탈권위주의, 양극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여유있는 생활과 평화에서 오는 자유외에도 사람, 물건, 정보의 활발한 복합과 교류 그리고 끊임없이 창출되는 새로움과 변화가 감성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¹⁹⁾. 이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젊은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감성주의적 경향은 현대 사회적 특징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각문화에 민감하며 강력한 수용력을 가진 세력이 젊은 세대라고 볼 때, 영상문화 세대로 시각적 표현에 민감한 그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

이들은 또한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양극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동조성과 개체화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동조성이란 것은 주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주변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 본다면 개체화는 동조성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독립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리는 행동을 말한다.

이들의 의식구조는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갈등이 아닌 상반되는 가치체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즉 융통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승희²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학 풍토의식은 현사회에서 요구되는 생

제2단계 : 자율성이 형성되거나, 수치와 회의가 형성되는 시기. (18개월~3세 경)

제3단계 : 주도성이 형성되거나, 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 (3~6세 경)

제4단계 : 근면성이 형성되거나,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 (6~11세 경)

제5단계 :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거나, 정체감 혼미가 형성되는 시기. (시춘기~청년기)

제6단계 : 친근감이 형성되거나, 고립감이 형성되는 시기. (청년후기~성인초기)

제7단계 : 생산성이 형성되거나, 자기침체가 형성되는 시기. (성인후기)

제8단계 : 자기 동정감이 형성되거나, 절망감이 형성되는 시기. (노년기)

18) 조규화, 21세기를 향한 패션산업의 전망-한국 전후세대의 패션의식을 중심으로-, pp. 211-212

19) 青木武一編, 이것이感性だ(東京:マネジメント社,1989), pp. 31-32.

20) 김승희, "신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특성에 따른 광고매체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9), pp. 85.

활과 밀접한 사교지향성이나 예절지향성 및 실용지향성 방향으로 관심을 보이며 이들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수준은 사회적 지향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론적 지향쪽과 도덕적 자아에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신세대인 대학생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위의 내용들이 오늘날의 대학생을 전부 대변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젊은 세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을 가져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를 급성장 시킨, 이와 같은 경향은 자연히 그들의 복식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들의 복식의 일반적 경향은, 개성을 표현하는 미의식을 갖추었으며,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파격적인 미의식, 그리고 미적기준의 다양성과 그 시한성의 단축, 복제속의 개성미, 개방화된 미의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여러 학자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Horn²¹⁾은 대학생들은 연령적으로 청년기에 속하며 어느 다른 연령층보다 의복에 대해 동질적이면서도 다양성을 요구하며 패션에 민감하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의복을 정서적 안정, 이성에 대한 매력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Roseencranz²²⁾와 이은영²³⁾은 여대생은 어느 다른 집단보다 패션의 변화가 잦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패션을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패션수용과 패션확산과정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박혜정²⁴⁾은 대학생의 의복구매 동기는 개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동기가 우선이라고 했으며, 심리적 변인으로 의복을 통한 자기확신감과 호기심이 강한 편이면서도 사회규범내에서 규범적 가치관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4. 의복에 있어서의 상징성

인간이 복식을 착용하게된 동기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순응과 또 한가지는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자기표현, 의례, 용의, 질서유지 등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인 목적을 다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입게된 복식의 역할 또한 실용적인 요소와 심미적, 사회적, 심리적, 상징적인 요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 인류학자인 Jhon stone²⁵⁾은 복식을 중요하고도 강력한 상징으로 보고 있다. 즉, 복식은 상징성에 대한 전형적인 법칙²⁶⁾과 구성적 법칙²⁷⁾을 보여주며,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라는 것이다.

21)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405.

22) Rosencranz, Mary L., A Study of Women's Interest in Cloth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41., 1947., p. 461.

23)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1985), pp. 253-258.

24) 박혜정,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pp. 80-81.

25) F. E. Jhonston, and H. Selby, 권이구 역, 현대문화인류학, (서울:탐구당, 1981), p. 50.

26) 전형적인 법칙:동시에 입을 수 있고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옷의 세목에 대한 법칙.

27) 구성적인 법칙:복식의 착용시 따라야 하는 법칙. 즉, 여러 종류의 복식을 함께 착용할 때 취하는 태도 및 방식.

Kaiser는 외모상징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지각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상징이란 기본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의미를 갖는 대상이며, 특히 복식 상징은 여러 다른 인간행위보다 가시적이며 형태가 분명하다고 하였으며 복식 상징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적 그리고 상황적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복식상징의 의미에 대한 정교한 체계가 성별, 연령, 지위, 개인적 취향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사회에서 비언어적 상징은 의복, mask, 머리형, 몸치장, 색상, 문신, 리본, 베일, 메달등의 형태로 사용된다²⁸⁾.

이러한 상징들 중에서도 특히 복식은 착용자가 누구인가를 전달해 주는 무언의 언어라고도 불리우며 비언어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²⁹⁾.

Ryan은 복식이 착용자에 대해서 관찰자에게 나타내 주는 것으로 연령, 성별,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혼인여부, 특별집단이나 조직의 소속관계, 태도, 흥미, 가치관, 기분, 인격, 고정관념등을 들고있다³⁰⁾.

복식의 색채 역시 기질과 상황, 정치적 성향, 종교등을 나타낸다. 복식 문양도 또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 바 태양, 별, 지구와 같은 우주, 영원함과 같은 관념 및 철학, 용기, 신념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비록 의복 상징에 부여된 의미는 추상적 일지라도 의복 상징은 다른 많은 형태의 인간행위보다 더 명확하고 시각적이다. Horn은 “복식은 감정과 사고를 시사하는 예술적 표현의 한 형식이다.”라고 한것처럼 복식은 사회전반의 변화와 발전을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전달 매개체로써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종속되어 물질분야 뿐만아니라 비물질분야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시킬뿐만 아니라 상징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처럼 복식의 형은 오로지 形 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意味이며 象徴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학자들의 복식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의복 및 장신구는 성별, 연령, 종교, 국적, 혼인여부, 지위 또는 신분, 특별집단이나 조직의 소속관계, 역할, 취향, 고정관념, 심리상태, 성적매력, 상황등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5. '93, '94년도의 패션 경향

93년 가을, 겨울의 유행 경향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스커트나 원피스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여성스러움에 편안하고 험렁한 느낌의 이지룩과 대조적으로 더블버튼이나 꼭맞는 자켓, 일자나 통넓은 바지, 와이셔츠나 셔타이로 표현되는 아주 심플한 남성 정장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기에 빼놓을수 없는 경향으로 가죽소재의 코트, 자켓, 베스트, 바지를 들수 있다.

94년의 봄/여름의 경향은 새로운 느낌의 체크패턴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현대적 감각과 낡고 오래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며, 절제되면서도 편안한 룩을 지레(gliet, 베스트류), 드레스, 롱스커트, 통이 넓은 팬츠등으로 연출한다. 남성복은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 유로 스포츠웨어 룩의 부드러운 '수트 룩'으로 전개되었다.

28. 강혜원, 전게서, p. 55.

29. 이유허, “Charles Dickens 小説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pp. 29.

30. Mary Shaw Ryan,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p. 14.

Ⅲ. 대학생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1. 성별의 상징

인간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본은 역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은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본 개념을 남성복, 여성복으로 구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즉 착장자의 성을 표현하고 여성, 남성의 복식에 의해 역사적으로 계속 구분되어 왔다. 그런데 복식은 두 성(남성, 여성)의 특징을 강조하여 구분짓는 기능뿐 아니라, 두 성의 특징을 은폐하여 이들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즉, 고정관념에 따라 형성된 복식에서의 전통적인 남성적 이미지를 남성이 채택하고,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이 채택하는 현상을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일치라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이탈된 현상들을 의복에서의 가시적 불일치라 할 수 있다. 이민선³¹⁾은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윤곽선으로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형,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윤곽선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 즉,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는 X형으로 보았으며,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채는 단순하고 세련된 무채색, 중간채도의 색이며,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채는 화려한 유채색, 중간에서 밝은채도의 색으로 보았다. 재질에 있어서도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재질은 무겁고, 거칠고, 양감이 있고, 딱딱한 직물이고,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재질은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고 비친다고 했다. 또한 남성적 이미지의 무늬는 스트라이프, 체크, 기하학적 무늬 혹은 무지이며,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무늬는 꽃 무늬, 추상화된 무늬라 하였다.

그밖에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요소로 짧은 머리, 수염 등을 들고, 여성적 이미지로는 긴 머리와 화장을 들었다.

1) 성의 가시적 일치 현상

〈사진 1-1〉은 길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서 비치는 소재의 얇은 천으로 곡선미를 살렸고 패턴도 꽃무늬인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적인 가시적 일치 현상이 보인다.

〈사진 1-2〉는 진바지, 랜드로버의 착용으로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의 Y형 실루엣을 이루는 남학생 복장이다. 이는 성별의 가시적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1-3〉은 〈사진 1-2〉와 같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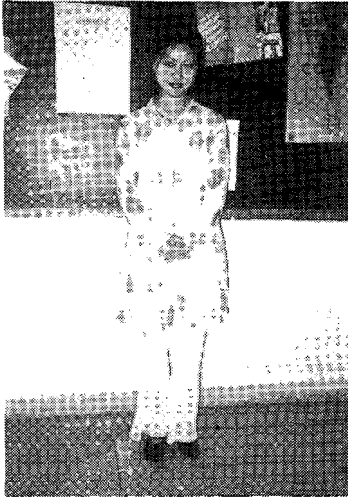
2) 성의 가시적 불일치 현상

〈사진 1-4〉는 여학생의 복장에서 쇼트 컷트형 헤어스타일에 야구복 형태에서 따온 cap, 점퍼, 청바지, 워커 차림의 남성적인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

〈사진 1-5〉는 남학생의 복장으로 cut 된 머리형도 여성적인 스타일로 자켓의 허리부분에 샤링이 들어가고 바지형도 힙을 강조한 스타일을 착용하여 어깨 부분보다는 허리, 힙의 강조로 여성스런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이에 손동작, 몸동작 또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태고 있다.

31) 이민선, "복식에 있어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pp. 7-10.

A. 성의 가시적 일치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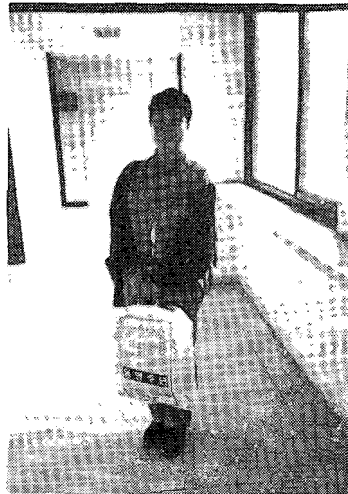


<사진 1-2>

B. 성의 가시적 불일치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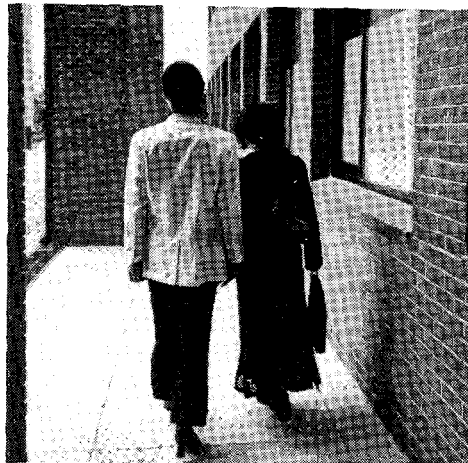
<사진 1-4>

<사진 1-6>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여학생의 모습으로, 왼쪽 여학생은 넓은 어깨를 강조하고 cut 헤어스타일로 전체적 실루엣이 Y형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주는 반면, 오른쪽 여학생은 왼쪽과 대조적으로 긴 헤어스타일에 레이스 롱 스커트를 입음으로서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했다.

<사진 1-7, 8>은 <사진 1-6>과 동일한 여학생의 구두 모습으로, 두 개의 구두형이 색상이나 디자인은 비슷하나 <사진 1-7>은 앞이 좀 더 뾰족하고 굽이 높아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사진 1-5>



<사진 1-6>



<사진 1-7>



<사진 1-8>

반면 <사진 1-8>은 앞이 뭉뚱하고 굽이 낮은 것으로 남자 구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사진 1-7>은 성별의 가시적인 일치 현상이며, <사진 1-8>은 성별의 가시적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학생이 여성스럽게, 남학생이 남성스럽게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이외에도 여학생임에도 남성스럽게,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럽게 복식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학생의 복식현상에서 Bem, Block, 카플란과 세드니, Hefner, Rebecca와 Oleshansky들이 주장했던 새로운 성역할 발달이론중 양성성 발달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되어 양성성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양극적 사고를 초월하여 더욱 개성적인 상태로 되어가고 있음을 대학생 복식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2. 동일성의 상징 및 개체화의 상징

Berlnberg³²⁾는 동조성을 사회 구성인의 태도와 행동이 성격의 발달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아 공통성을 나타내려는 경향이라 하였고 Arglye³³⁾은 사람은 개인이나 집단에 수용되기를 원하며, 이 수용을 얻는 방법으로 동조하게 된다고 하였다. 고영복³⁴⁾은 동조 현상에 대해 개인의 내부적인 성격요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의 상황적 요인간의 상호 작용이라 했다. Freedman, Sears Carlsmith³⁵⁾는 동조성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Horn³⁶⁾은 역할의 모호성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본능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동료집단의 의복에 동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은 Erikson이 나는 자아정체감의 객관적인 측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체화라는 것은 보편화 또는 동일화와 반대의 개념을 갖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입는대로 입는다하더라도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려고 애쓴다. 즉, 기존 규범으로부터의 이탈과 비동일성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Erikson이 나는 자아정체감의 주관적 측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서 어떤 학생은 유행속에서 유행규범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복을 착용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유행속에서 자신의 창작적 의복을 연출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개체화를 강조하는 학생들은 집단의 의견에 의존하지도 않고 고의로 반대의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자기동일성의 상징은 한 집단에 귀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니폼, 글자셔츠와 유행되는 의복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학의 총학생단 선출시 각 기호그룹이 동일하게 착용한 의복, 대학생 체육대회때 학과를 표상하는 uniform, T-shirt를 입는다던가, 각 대학 농구팀, 야구팀 등이 입는 대학이름이 들어간 uniform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것들이 각 대학 또는 대학내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32) Raymond E. Bernbery, Personality Correlates of Social Conform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3., 1956., p. 309.

33) Taylor, L. C. and Compton, N. 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0., No. 8., 1968., p. 653.

34)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서울:법문사, 1980), p.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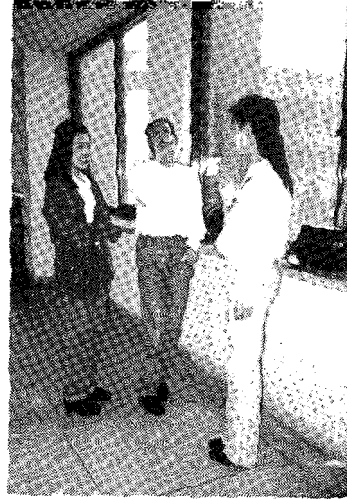
35) Freedman, J., Sear, D., and Carlsmith, J. M., *Social Psychology 14th ed.*,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36)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1968), pp. 112-217.

A 동일성의 상징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1) 동일성의 상징

<사진 2-1>은 사진의 세 여학생은 T 셔츠, 청바지 차림으로 허리에 가디건을 묶은 착용 방법이 같다.

<사진 2-2>는 색상은 달라도 같은 품목의 가디건의 착용과 청바지, 구두 등에서도 동일성을 볼 수 있다.

<사진 2-3, 4>는 같이 다니는 친구끼리 같은 형태의 가방을 착용한 모습에서 동일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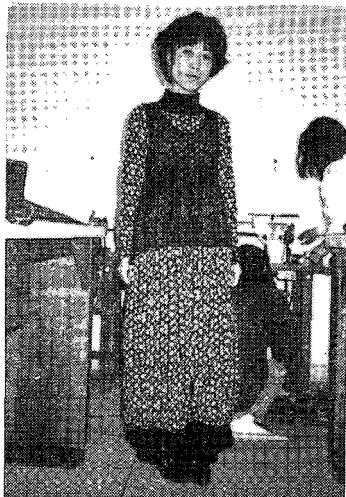
<사진 2-5>는 T 셔츠를 통해 한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었으며 성원끼리 동칠 수 있는 동질감을 보여준다.

2) 개체화의 상징



<사진 2-5>

B. 개체화의 상징



<사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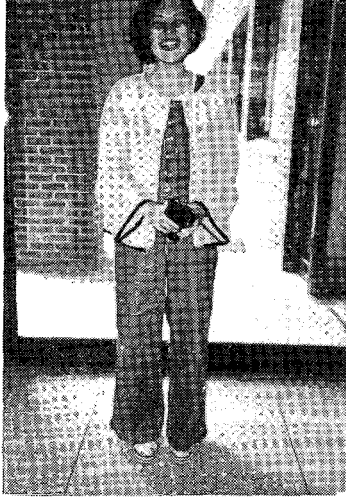
<사진 2-7>

<사진 2-6>은 롱 실루엣에 3가지 이상의 의상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을 연출했으며, 비치는 조끼를 덧입어 유행을 따르는 동시에 자신을 돋보이게 했으며, 잔잔한 꽃무늬의 여성미와 검정 색조로 전체적 통일감을 주는 의상이다.

<사진 2-7>은 긴소매 셔츠와 짧은 반바지가 대조를 이루며, 리본모양으로 묶은 스카프 또한 언밸런스한 포인트이다.

<사진 2-8>은 언밸런스 헤어스타일과 아래 위가 붙은 통형의 조끼 바지에 가디간과 신발의 소재, 색상을 같이 하여 자신만의 독특함을 연출하였다.

<사진 2-9>는 긴 슬릿이 들어간 롱 스커트만에 바지를 겹쳐 입고 이러한 하의에 대조를 이루어 상의로는 스포티한 T 셔츠와 남방을 걸치고 야구 모자형의 cap을 썼으며, short cut 헤어스타일을 한, 전체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몇가지 의상을 레이어드 한 모습이다.



<사진 2-8>



<사진 2-9>



<사진 2-10>

<사진 2-10>은 남학생의 헤에스타일로 뒤통리를 몇가닥 남기고 컷트하여, 남긴 부분을 묶은 모습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진분석으로 부터 대학생은 Erikson의 정체감 발달 단계중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당과 적이고 배타적일 수도 있는 시기인 제5단계와 이성의 상대방과 공유적 정체감을 갖고 싶어하며 이러한 욕구로 상대방과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시기인 제6단계에 속한다는 것을 그들의 복식현상중 동일성의 상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또한 Erikson의 자아정체감 분류중 주관적인 측면으로 이는 자기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개인적 정체감'과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

념등에 있어서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지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그들의 복식에서 또한 찾아 볼 수 있었다.

3. 표상의 상징

표상이란 대표적인 상징으로 철학에서는 idea, 심리학에서는 감각을 요소로 하는 심적 복합체를 이르는 말이나 의식중 과거의 인상이 재현된 것 또는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 내용을 일컫는다. Mead는 타인들이 개인의 주위에 있음으로써 각 개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안에 현존하고 있는 타인들이라 했으며 타인들은 상징적인 표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존한다고 하였다³⁷⁾.

본 교에서는 복식의 독특한 의미로 어떤 대상을 지향시키기 위한 기호로 표시된 경우 즉,

표상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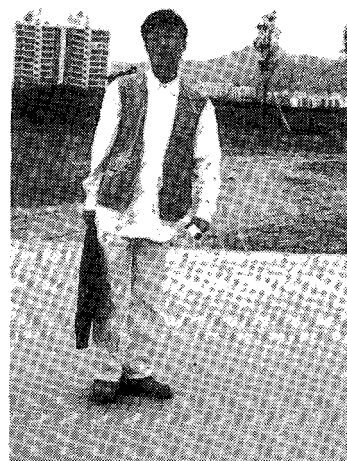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사진 3-4>

37) Schellenberg, J. A., 김동일, 이동원 역, 사회심리학의 대가들,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p. 73.

신분의 상징을 표상으로 보았다. 1980년대 이전의 대표적인 대학별 표상의 상징인 대학생 뺨지는 거의 사라지고 손에 그 대학 마크가 들어 있는 노트북나 파일 커버 등에서 대학생의 신분, 혹은 어느 대학 및 전공학과를 알 수 있다.

〈사진 3-1〉은 학생이 들고 있는 학교 구내 서점용 봉투에 학교 마아가크가 보인다.

〈사진 3-2〉 손에 든 파일에 학교 마아가크가 새겨져 있다.

〈사진 3-3, 4〉 그래픽 백을 든 모습으로 학생의 전공을 짐작할 수 있다.

4. 의례의 상징

입학식, 졸업식 또는 대학의 축제라든가 학교의 발표회 등에 참석키 위한 禮를 갖춘 의복으로서 정장스타일과 졸업가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사진 4-1〉 여학생의 정장 스타일은 上, 下 색상의 통일성을 보이며, 스커트 길이가 대체로 미니이며, 투피스나 원피스 차림이다.

〈사진 4-2〉 남학생 정장은 블레이저에 바지차림으로 上, 下 색상이 다르다.

〈사진 4-3〉 졸업식복으로 학교 의례복의 대표적인 것이다.

의례의 상징



<사진 4-1>



<사진 4-2>



<사진 4-3>

5. 대학생의 패션경향

앞의 제시된 사진에서 남, 녀 대학생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복식현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의복의 종류

〈남학생〉 상의: 셔츠, 스웨터, 블레이저, 점퍼

하의: 진 바지, 모직 바지

신발: 운동화, 랜드로버

〈여학생〉 상의: T-셔츠, 스웨터, 블레이저
하의: 청바지, 저어지 바지
신발: 검정색 통굽 구두

2) 색 상

〈남학생〉 카키, 회색, 자주 등 탁하고 어두운 중간톤의 색.
〈여학생〉 기본적인 검정, 곤색에 베이지톤과 흰색 등에 파스텔톤의 보라계열 등과 빨간색으로 강조.

3) 디자인

상의 : fit되는 더블버튼 자켓, 혹은 3개 이상의 단추가 달린 블레이저, 가디건, 남학생은 점퍼도 많이 착용.

하의 : 바 지 - 일자나 통바지, 길이가 신발을 덮을 정도로 길다.

여학생은 판타롱 스타일.

스커트 - A라인 혹은 기본형의 미니,

일자형의 롱 스커트.

4) 헤어스타일 및 모자

〈남학생〉은 무스, 드라이어를 사용한 뒤로 넘긴 머리형이나 위로 송곳처럼 솟게 하거나 파마를 한 스타일이며 혹은 특이하게 아주 길게 하거나 몇 가닥을 tail로 남겨 묶은 머리형이다. 귀가 보이게 목뒤부분은 아주 짧은 편이고, 앞은 이마를 약간 덮는 스타일이다. 모자는 야구모자 스타일이 보인다.

〈여학생〉은 길고 자연스러운 인공적인 손질이 없는 머리형으로 그대로 흘러내리는 형태나 pin up style로 틀어 올려 중간중간 머리카락을 늘어 뜨렸다.

모자는 F/W는 다양한 모양의 베레모가 보이고, S/S는 챙이 있는 형태나 야구모자형이 보인다.

5) 가방과 신발

〈남학생〉 가방은 썬이나, 가죽 책가방으로 갈색과 검정색이며, 신발은 흰색 운동화(주로 농구화)와 렌드로버 또는 워커형식 변형의 긴 부츠스타일이 보이며 대체로 굽이 높다.

〈여학생〉 색상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검정과 갈색, 밤색, 자주색이 주를 이루며, 핸드백은 각이지고 끈을 짧게 하여 옆구리 정도의 길이로 매었다. 책가방으로는 썬과 끈이 긴 통가죽 가방이다.

신발은 롱부츠, 아주 높은 통굽으로 앞부분도 굽이 있어 전체적으로 투박한 모양이다. 심지어 캐주얼 운동화에도 굽을 달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복식현상으로, 우리는 그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상징의 몇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청바지를 비롯한 진 패션, 썬과 같은 가방과 파일, 긴 스트레이트의 자유스러운 헤어스타일

(여학생)들은 대학생임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의복의 단서로 대학생의 의복행동은 진차림의 캠퍼스 웨어가 클래식화 되어 존재하고, 그위에 유행의 동조가 자유스럽게 펼쳐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복식에 나타난 여러 상징성 중 대표적인 상징을 네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성역할이론과 정체감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복식현상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의 상징으로 성의 가시적 일치, 불일치 현상이 남, 녀 대학생에게 동시에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역할 발달이론중 양성성발달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되어 양성성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양극적 사고를 초월하여 더욱 개성적이고 적용적인 상태로 되어가고 있음을 그들의 복식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의 의복이 소재와 색상면에서 중성화가 되어가는 면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동일성의 상징 및 개체화의 상징으로는 함께 행동을 하는 친구들끼리 의복형태, 착용방법, 가방, 악세사리, 신발등이 동일하거나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으로는 청바지, T-셔츠차림이 가장 많이 보이며 의복보다는 신발, 가방, 악세사리, 헤어스타일 등에서 동일성의 상징으로 더 많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개체화의 상징으로는 자신만의 의복표현이 반항적인 미를 추구하는 개성미가 아닌 유행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단의 의견에 의존하지도 않고 고의로 반대의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먼저 유행을 받아들이고 착용하여 선을 보이는 의미에서 개체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Erikson의 정체감 발달 단계중 소속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당파적이고 배타적일 수도 있는 시기인 제5단계와 이성의 상대방과 공유적 정체감을 갖고 싶어하며 이러한 욕구로 상대방과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시기인 제6단계에 속한다는 것을 그들의 복식현상중 동일성의 상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또한 Erikson의 자아정체감 분류중 주관적인 측면으로 이는 자기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개인적 정체감'과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등에 있어서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그들의 복식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표상의 상징으로는 여학생은 손에 든 화일이 대표적이며, 남학생은 가죽가방, 썸 등이 있었다. 이들 대학생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같은 연령의 다른 신분, 예를 들면 직장인들과 구분되는 것으로 발달하고 실용적인 옷차림에 손에 든 화일, 책가방을 들 수 있다.

넷째, 의례의 상징으로 입는 복식은 여학생은 상, 하의 색이 통일된 투피스, 원피스 차림으로, 스커트 길이는 짧고, fit되는 형태로 구두는 굽이 높은 것을 신었으며, 반면에 남학생은 상, 하의 색을 다르게 입으며, Y-셔츠에 넥타이를 매어도 Y-셔츠와 넥타이의

색상이 다양함과 혹은 니트조끼 등을 착용함으로써 캐주얼한 요소를 가미하였다. 끝
이들의 의례용 정장의 의미는 일반인의 정장의 의미보다는 좀 더 자유스럽고 융통성
있는 복장으로 단지 한벌로 갖추어 입는다는 의미만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대학생 복식에서 나타난 '성별의 상징', '동일성의 상징 및 개체화의 상징', '표상의 상
징', '의례의상징'을 분석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역할과 정체감 그리고 신세대의 특성인 "자기
표현"이라는 복잡 다양한 가치관이 그들의 복식관에 상징성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강혜원, 의상 사회 심리학, 서울:교문사, 1985.
2. 고영복, 현대 사회 심리학, 서울:법문사, 1980.
3. 김승희, "신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특성에 따른 광고매체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9.
4. 박혜정,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5.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경춘사, 1989.
6.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서울:일조각, 1985.
7. 이민선, "복식에 있어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
학 원, 1992.
8. 이유경, "Charles Dickens 小説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9.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교문사, 1985.
10. 정현숙, 김진구, "셰익스피어 비극작품에 나타난 복식역할의 분석", 한국의류학회, 한국
의류 학회지, Vol. 17, No. 3, (1993).
11. 정홍숙, 복식 문화사, 서울:교문사, 1988.
12.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심리학, 서울:서원, 1993.
13. 한상복, 김광익, 이문웅, 문화인류학개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14. 한명숙, "한국 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8.
15. 青木武一 編, 이것이 感性だ, 東京:マネジメント 社, 1989
16. Bem, S. L.,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Paper presented at the UCLA Symposium
on Women, 1972.
17. Bem, S. L., Gender Schema Theory: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1981.
18. Block, J. H., Conception on Sex Roles: Som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1973.
19. Descamps, Marc-Alain, 이연숙 역, 유행심리, 서울:동국출판사, 1990.
20. Feedman, J., Sear, D., and Carlsmith, J. M., *Social Psychology 14th ed.*,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21. F. E. Jhonston, and H. Selby, 권이구 역, 현대문화인류학, 서울:탐구당, 1981.
22. Freud, A., Adolescence, *Psychanalytic Study of Child*, Vol. 13, New York: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8.
23. Hefner, R., Rebecca, M. and Oleshansky, B.,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975
24.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25.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1968
26. Maccoby, E. E. and Jacklin, C. N.,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 Stand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74.
27. Mary Shaw Ryan, Clothing-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Hoi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6.
28. Mischel, W. C., Introduction to Personality, (2nd ed.), N. Y. :Holt, Reinhard and Winston, 1976.
30. Raymond E. Bernbery, Personality Correlates of Socail Conform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3., 1956.
31. Rosencranz, Mary L., A Study of Women's Interest in Cloth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41., 1947
32. Phares, E. Jerry, 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서울:박영사, 1987.
33. Schellenberg, J. A., 김동일, 이동원 역, 사회심리학의 대가들,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34. Taylor, L. C. and Compton, N. 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0., No. 8., 1968.